

2024. 3. 21.(목)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3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장	김 경 원	02-2133-7489
자활정책팀장	강 윤 경	02-2133-7482
자활지원팀장	기 재 일	02-2133-7489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10쪽

서울시, 지난 겨울 노숙인 응급조치 7만 8천건… 봄~가을은 자립 집중 지원

- 11.15.~3.15. '노숙인 겨울철 보호대책' 추진 완료. 노숙인 안전사고 적극 예방
- 매일 108명 거리상담반 순회, 응급잠자리(3,235건)·병원입원(295건) 등 연계
- 지난해 10~11월 쪽방촌 619개소 사전 안전 점검, 전기·가스시설 선제적 개보수
- 3월 이후 노숙인 일자리 2,330개 연계, 690명 임시주거지 제공 등 자립 지원 집중

서울시가 겨울철 저체온증 등 위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리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 대한 4개월('23.11.15.~'24.3.15.)간의 '겨울철 집중 보호 대책'을 마무리했다.

○ 지원건수는 현장상담과 응급환자 연계, 응급잠자리 이송 보호 등 총 7만 7,552건에 달한다. 다가오는 봄~가을에는 거리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이 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매일 108명 거리상담반 순회, 응급잠자리(3,235건)·병원입원(295건) 등 연계>

□ 겨울철 집중보호대책 기간 중 현장(거리)상담이 7만 3,778건 이뤄졌고
 ▲응급환자119 신고(31건) ▲응급 잠자리 이송 보호(3,235건) ▲시설
 입소(14건) ▲병원입원(295건) 등 총 7만 7,552건의 응급조치가 진행
 됐다.

- 해당 기간 동안 매일 자치구·노숙인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
 53개조 108명이 활동했고, 한파특보기간에는 59개조 124명의 상담반
 이 현장을 돌며 노숙인의 안전을 살폈다.
- 한파특보기간에는 서울시 자활지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1일
 3개조 7명)도 추가로 노숙인 밀집지역을 돌며 야간 거리상담을 진행했다.

(단위 : 명)

구분 \ 월별	연인원	일평균	'23.11월	'23.12월	'24.1월	'24.2월	'24.3월
계	42,675	350	327	343	363	365	363
응급대피소 (일시보호시설 포함)	41,710	342	323	339	352	355	351
응급쪽방	965	8	4	4	11	10	12

□ 시가 제공하는 응급잠자리 이용을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에게는 침낭
 235개, 의류 4,188벌, 핫팩 56,046개 등 총 14만4,445개의 방한
 용품을 지급해 한파 사고를 막았다.

(단위 : 건)

구분	계	침낭	핫팩	의류	마스크	컵라면 등 기 타
계	144,445	235	56,046	4,188	54,462	29,514
노숙인시설	126,278	188	46,248	3,758	52,634	23,450
자 치 구	18,167	47	9,798	430	1,828	6,064

- 이외에도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등 한파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거리노숙인 135명은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상담원들이 노숙 위치를 모니터링 하고 건강상태를 확인 등 집중 관리를 펼쳤다.
- 집중관리대상자에게도 구호물품지급(5,778건), 응급잠자리(941건), 임시 주거지원(228건), 생활시설 입소(11건), 병원연계(9건) 등을 제공했다.

<지난해 10~11월 쪽방촌 619개소 사전 안전 점검, 전기·가스시설 선제적 개보수>

- 아울러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쪽방촌 619개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10~11월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겨울이 오기전 노후 전기·가스 시설물에 개보수를 완료했다. 고장 보일러 15대(연탄 11개, 기름 4) 수리하고, 전기 순간온수기(15대)도 설치했다.
- 또한 쪽방주민 한파 사고와 야간 화재예방을 위해 주간순찰(1,500회), 야간순찰(1,150회)을 실시했으며 쪽방주민 중 고령이나 중증질환환자 153명은 별도로 관리, 간호사가 총 7,235회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를 살피고, 치료가 필요한 주민 228명은 병원으로 연계했다.
- 이외에도 난방시설이 열악한 쪽방주민을 위한 동행목욕탕 4곳을 야간 목욕·밤추위대피소(21시~익일 6시)로 제공, 혹한기인 1~2월 총 1,929명(일평균 30여명)이 이용했다. 두달간 주간목욕 이용자도 8,094명에 달했다.
- 동행목욕탕은 쪽방촌 주민들에게 매월 2회 목욕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혹서기·혹한기에는 야간 잠자리로도 활용하고 있다.

<3월 이후 노숙인 일자리 2,330개 제공, 지원주택 60호 신규공급 등 자립지원 집중>

- 시는 지난 3월 15일부로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특별보호대책은 끝났지만, 봄~가을에는 쪽방주민 보호와 자립지원 정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 우선 시는 1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숙인과 쪽방주민에게 2,330개의 맞춤형 공공·민간일 자리를 지원해 자립기반을 제공한다.
 - 올해 제공하는 일자리는 ▲민간일자리 연계(1,250개) ▲공공일자리 (800개) ▲공동작업장(280개)로, 상담을 통한 근로능력과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한다.

- 또한 단체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로 시설입소를 꺼리는 노숙인 690명에게는 고시원 등 임시주거지를 지원한다. 알코올의존증·정신질환 노숙인에게는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60호를 추가로 제공해 지역정착을 돕는다.
 - ‘임시주거지원사업’은 거리노숙인에게 고시원 등 34만1,000원 내외 월세를 연중 6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90명이 대상이다.
 - 지원주택은 시설생활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전문 사례관리서비스와 주거가 동시에 지원되는 주택으로 올해 3월 현재 267호가 운영중이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 자치구, 노숙인시설 등 여러 기관의 노력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보호대책을 완료했다”며 “남은 계절에는 노숙인의 자립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더 따뜻하고 매력있는 서울시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작년 3월경부터 고속터미널 일대에서 지내던 김OO님(여, 48세), 서초구청과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를 해왔으나, 알코올의존증 등의 문제로 지원을 거부해 왔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 2월 말 센터 상담원에게 심한 빈혈, 부종과 거동불편 문제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강남성모병원 응급실 입원을 진행했다. 응급치료를 마치고 서울시립 서북병원으로 이송돼 추가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치료를 끝낸후 노숙인 시설로 연계하거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임시주거지원 후 지원주택 신청 등을 안내 예정이다.
- # 실직과 알코올중독 및 우울증 등으로 작년 10월경부터 강남역, 서울역 등에서 노숙을 하던 신OO님(남, 41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거리 상담 후 센터 정신건강팀에서 심층상담을 진행했고, 자살도구를 소지하고 다닐 정도로 자살시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확인해 지난 1월 26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를 연계했다. 입원치료 종료 후에는 재활시설 연계 또는 임시주거지원 후 재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 정신질환 문제로 영등포일대 등에서 20년 가까이간 노숙하던 이OO님(여, 68세). 작년 12월 서울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거리상담 중 명치통증 등을 호소, 시립보라매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이대서울병원으로 전원됐다. 치료과정에서 대상자 실명과 나이가 다른 것을 확인했고 해당 실명대상자는 지난 2013년 6월로 사망신고가 된 상태였다.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와 영등포구청, 이대목동병원 사회사업실의 도움으로 병원치료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치료가 끝난 후 지난 3월4일 요양병원으로 전원해 건강을 회복 중이다.
- # 3년전 아내와의 사별 후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해 주거지와 개인사업을 정리하고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서 노숙을 하던 이OO님(남, 67세). 작년 11월 성동구청과 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시설에 입소했다. 센터에서 3일간 보호 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의뢰, 일시보호와 정신과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대상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여 요양시설이나 임시주거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 주거지가 있는 수급자이나,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로 동대문구 우각산공원 일대에서 수년째 노숙하던 김OO님(남, 72세). 동대문구청과 서울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의 지속적인 상담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노숙을 지속해 왔다. 식사를 제때 하지 않고 노숙생활이 장기화되며 건강이 좋지 않음을 느껴 병원치료를 지속 권하던 중, 작년 12월 14일 대상자는 마음을 열고 병원치료를 동의하게 되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다. 병원진료 과정에서 급성신우신염진단을 받아 치료를 진행했고 향후 치료 완료시 요양병원으로 전원예정이다.

붙임1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세부 추진실적
-----	---------------------------

□ **추진기간 : '23. 11. 15. ~ '24. 3. 15.**

□ **세부 추진실적**

○ 응급잠자리 취침현황 : 1일 평균 350명(연인원 42,675명)

(단위 : 명)

구분 \ 월별	연인원	일평균	'23.11월	'23.12월	'24.1월	'24.2월	'24.3월
계	42,675	350	327	343	363	365	363
응급대피소 (일시보호시설 포함)	41,710	342	323	339	352	355	351
응급쪽방	965	8	4	4	11	10	12

○ 서울역·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운영 : 1일 평균 392건(연인원 47,769건)

(단위 : 건)

총계	상 담				지원실적					
	소계	입소	주거	일자리	소계	시설연계	병원이송	주간휴게	샤워	의류지원
47,769	1,533	245	707	581	46,236	229	536	24,562	4,546	9,407

○ 거리상담반 운영 : 53개조 108명(특보 발령시 59개조 124명 운영)

- 노숙인시설 : 주간, 야간 및 심야 등 1일 6회 담당구역 순찰
 - ※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자활지원과 1일 7명 지원(특보기간 전직원 비상근무)
- 자치구 : 자치구별 자체 순찰반 1~4조(최대18명, 영등포구) 편성 운영
- 주요 추진실적

(단위 : 건)

구분	계	119신고	생활시설 입소	응급잠자리 연 계	병원입원	상담·정보 제공 등
계	77,552	31	214	3,234	295	73,778
노숙인시설	63,345	16	170	3,160	283	59,716
자치구	14,207	15	44	74	12	14,062

※ 노숙인 정신건강팀 활동 실적 별도

○ **고령자 등 건강취약자 집중관리**

- 관리대상 : 135명
- 지원현황 : 응급잠자리 연계 941건, 생활시설 입소 11건, 병원연계 9건, 임시주거지원 228건, 귀가조치 12건, 구호물품지급 등 5,778건

○ **구호물품 지급 : 144,445점**

(단위 : 건)

구분	계	침낭	햇팩	의류	마스크	컵라면 등 기 타
계	144,445	235	56,046	4,188	54,462	29,514
노숙인시설	126,278	188	46,248	3,758	52,634	23,450
자 치 구	18,167	47	9,798	430	1,828	6,064

※ 침낭 지원시 시설이용 거부 거리노숙인, 산재 거리노숙인 우선 지급
(응급잠자리 이용 권유(우선) → 저체온증 우려 등 불가피할 경우 침낭 제공)

○ **노숙인 정신건강팀 운영**

- 대상자 상담 : 3,971건
- 지원현황 : 입원 129건, 시설연계 78건, 주거지원 114건, 외래진료 848건, 공적복지 연계 52, 주민등록 복원 22, 정보제공 등 1,882건

○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 운영 : 818건 접수 (1일 평균 7건)**

- 조치사항 : 현장출동 225건, 시설입소 209, 정보제공 등 384건
- 신고자 : 유관기관(경찰 등) 443건, 시민 213건, 노숙인 당사자 101건, 기타 61(타시도 등)

○ **위기대응콜 홍보 및 노숙인 시설 안내책자 배부**

- 위기대응콜 포스터 8만부 게첨(지하철역, 공원 등)
- 서울시 노숙인 서비스 책자 “희망길잡이” 4,000부 제작·배부



<서울시장 동행목욕탕 점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역 여성노숙인 상담>



<브리짓지종합지원센터 광화문역 노숙인 구호물품 지급>



<영등포쪽방촌 연탄후원 봉사활동>



<창신동쪽방촌 전기·가스안전점검>